

시중금리 내렸지만 체감금리 '뽕뽕' 가계·中企 '고금리 고통' 여전

경기침체 실질소득 감소 이자부담 '허덕' 韓銀 폰 돈도 U턴 ... 기업들 자금난 여전

한국은행이 최근 두 달여 동안 기준금리를 2.25%포인트 내리면서 시중금리도 일제히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출금리 하락이 기준금리 인하속도에 못미치고 경기침체로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가계는 여전히 이자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공급하고 있지만 이 돈이 시중으로 흐르지 않고 한국은행으로 되돌아오면서 기업들은 자금난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21일 한국은행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번 주초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1주일 전보다 0.10%포인트 낮은 연 5.16~6.46%를 적용한

다. 10월 말보다 1.80%포인트 떨어졌던 것으로, 2006년 2월 이후 최저치다.

국민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5.00~6.50%, 신한은행은 연 5.06~6.36%, 외환은행은 연 5.55~7.33%로 두 달여 사이에 1.32~1.92%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이들 대출의 금리하락폭이 기준금리 인하폭에 미치지 못하고 기존 대출자에게는 3개월마다 그때 시점의 변경된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담장 피부로 금리인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고 실질소득마저 갈수록 감소하면서 금리가 내리기도 이자상환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3분기 실적 국민총소득은 전 분기보다 3.

7% 줄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9.6%) 이후 최악이었고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물가상승을 감안한 월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0%였다.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평균금리는 이달 19일 현재 연 6.80~7.00%로 10월 말 이후 0.86~1.06%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으며 2006년 말 연 6.40%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에는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만기 9개월짜리 정기예금의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연 5.10%로 10월 말보다 2.00%포인트 내렸다. 국민·신한·하나·외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폭에 맞춰 예금금리를 낮추고 있다.

한은이 지난 9월 중순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몰락 이후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금융기관에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총액한도대출 증액 등의 방법으로 총 20조원을 공급했지만 상당금액이 한은으로 역류하고 있다.

지난주 실시된 RP 매각입찰에는 금융기관이 사상 최대인 41조원을 응찰했지만 한은은 지나치게 많다고 보고 이중 13조원만 낙찰시켰다. RP 매각은 유동성 조절을 위해 한은이 시중자금을 흡수하는 수단이다.

은행들이 한은에 맡기는 하루짜리 단기예금(자금조정예금)도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은행들이 기업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풀기보다는 폐일 열려가 없는 한은을 통해 오히려 불리는 것이다.

이달 들어 18일까지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주요 4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1천489억원으로 11월 한달간 증가액 1조8천714억원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한은이 자금을 공급하면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은행들이 자본 확충에 열중하고 대신 대출심사는 강화해 시중에 제대로 돈이 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개인 주식자산 160조 이상 날렸다

올해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한때 코스피지수 1,000선이 무너지는 등 국내 증시가 급락해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관련 자산 가운데 160조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18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직접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의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1조6천133억원이 줄었고, 국내와 해외 공모주식펀드에서 61조503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등 개인들의 주식관련 자산이 162조6천663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직접투자의 경우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모두 합쳐 작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650조1천294억원이었으나 지난 18일 현재 248조4천957억원으로 줄면서 401조6천337억원이 사라졌다.

이 중 작년 말 현재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25.3%인 점을 감안하고 이 비중이 현재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개인의 보유주식에서만 101조6천133억원이 사라진 셈이 된다.

이와 함께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이 집계한 공모형 국내 및 해외 주식형펀드의 평가손실 규모는 각각 27조7465억원과 33조3천38억원으로 총 61조50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주식형펀드 '애물단지' 올 평균 수익률 -37%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함박웃음을 안겨줬던 주식형펀드들이 올해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과 전 세계 증시의 동반 폭락으로 국내외 주식형펀드들의 수익률이 예외없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최근 증시 반등에 힘입어 수익률이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손실규모는 전례없을 정도로 큰 편이다. 올해 '최악의 펀드'는 금융위기와 원자재 가격급락의 직격탄을 맞은 러시아펀드이며, 수익률이 플러스(+)를 유지한 것은 채권형펀드 뿐이다.

21일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19일 기준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684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37.37%, 해외 주식형펀드 769개는 -49.96%를 기록했다. 그나마 10월 말 각각 -48.47%와 -59.62%까지 떨어졌던 데서 회복한 것이다.

국내주식형펀드는 대체로 성격이 부진한 가운데 특정 그룹이나 업종 주식에 투자하는 테마주펀드(55개)의 평균 수익률이 -30.72%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일반주식펀드(454개)와 중소형주펀드(18개)는 -38.31%와 -38.56%로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하락률인 -37.75%를 밑돌았다. /연합뉴스

對日 무역적자 '눈덩이' 사상 첫 300억불 돌파

올 무역적자는 136억달러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침내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에 대한 무역적자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억 달러를 돌파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308억5천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74억1천300만 달러)에 비해 12.6%(34억4천600만 달러)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대일 무역적자 규모인 299억 달러에 비해서도 3.3% 많은 것으로, 대일 무역적자가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는 2006년 254억 달러에서 지난해 299억 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 엔고(高) 등의 영향으로 올

해도 증증하면서 3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아직 12월 무역수지가 집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대일 수입제품의 가격이 높아졌고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업종인 반도체·플라스틱 등의 수출증가로 일본으로부터의 핵심부품 수입도 덩달아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유가 하락, 전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 전환 등으로 11월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18억4천6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25억9천700만 달러)에 비해서 28.9%(7억5천100만 달러) 감소해 12월에도 이러한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올해 들어 11월까지 전체 무역수지는 136억6천3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우수 농산물 판매 합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부는 지난 18~21일 목포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전남지역 우수 농산물 전시·판매전과 함께 방울토마토·배 등 시식회를 가졌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정부 지원 미흡 기업도시 지지부진”

전경련 보고서, 인프라 구축·일자리 창출도 약화

건설단계에서 22조원의 투자와 54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기업도시 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원 미흡과 개발 비용 증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주요 이슈와 실상’ 보고서에서 “기업도시 사업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커서 효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부지원 미흡으로 추진동력이 많이 약화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도시가 낙후지역에 있어 사업성공의 불확실성이 높고 사업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됨에도 개발사업자에게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인식돼 진입로 등 도시 인프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각종 비용부담을 요구해 사업성이 악화되고 사업진척이 부진하다”고 주장했다.

11월말 현재 6개 기업도시의 개발비용은 당초 개발계획승인(신청)시보다 7.9% 증가했고, 이 가운데 총중추는 27.5%, 태안은 16.6%, 원주는 16.

5%, 무안(MECD)은 12.1% 증가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일각에서 ‘기업 없는 기업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개발사업자가 입주기업과 정주인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최소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부지에 산업시설은 물론 주거·의료·교육·레저 등 자족형 복합도시 기능을 가진 기업도시를 통합적으로 조성하려면 노후유를 가진 전문 개발사업자가 기업도시를 먼저 개발한 후 입주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개발절차”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고령자·초보 투자자에 파생상품 함부로 못판다

금융사 고객 등급별 판매 의무화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들은 의무적으로 투자자의 경험·성향·지식 등을 고려해 투자자의 등급을 나누고 해당 고객 수준에 맞는 마케팅을 해야 한다.

투자권을 받지 않고 투자자가 스스로 파생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금융사가 거래의 적합성을 따져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더라도 분명한 투자위험을 경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세부 과제로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투자자 등급별 투자권유 준칙을 만들어 상위등급의 전문 투자자에게는 위험해지 장외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수 있고, 경험이 부족한 하위등급 투자자에게는 위험도가 낮은 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하거나 이에 거래를 말려야 한다.

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상정법인이나 투자자격인 등도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분류해 보호하고,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위험 ‘적색 경고제’도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투자자에게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투자경험이 적거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권유시 적절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에게 전하는 방안도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불황기에 광고비 줄이면 향후 매출 감소 등 타격

제일기획 200개사 분석

불황에도 광고에 소홀하지 않은 기업은 이후 경기 회복기에 효과를 본다 분석이 나왔다.

제일기획은 1997년 기준 매출 1천대 기업 가운데 광고비 집행규모 상위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불황위기 전후(1997~2000년) 광고비 투자와 매출추이를 분석,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98~99년 광고비를 97년보다 10% 이상 늘린 55개 기업은 같은 기간 매출도 약 2배(199%) 늘었고, 이후 2000~2002년 경기 회복기에 97년 대비 연평균 307%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10% 이상 광고비를 줄인 119개 업체는 경우 98~99년에는 매출이 평균 6% 정도 줄고 2000~2002년 매출 증가율도 연평균 141%에 그쳤다.

또 보고서는 적절한 마케팅을 통해 외환위기 불황을 극복한 기업으로 ▲웅진코웨이·동아제약(발상의 전환) ▲삼성화재·동서식품·롯데칠성(경쟁사 위축을 기회로) ▲삼성전자·남양유업(프리미엄 마케팅) 등을 꼽았다.

한편 지난 18일 한국광고주협회는 55개 회원을 대상으로 2009년 광고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71%(39개)가 “매출감소와 긴축경영으로 내년 광고예산을 올해보다 줄이겠다”고 답했다며 내년 광고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순두유 1억병 판매’

매일유업이 21일 강원도 대명 비발 디파크에서 ‘순두유 1억병 판매’를 기념, ‘1000일 동안의 부드러운 만남’이라는 테마로 순두유 시음회를 열고 있다. 또 내년 2월10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스키장 리프트권, 영화예매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로도복권 (제136회)				팝콘복권 (제139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0 11 21 27 31 39	43			1	5억	4조	444343
등위	당첨금(원)			2	1억	2조	498488
1	6개 숫자 일치	1,673,586,400	6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24533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7,709,876	29	4	1백만	각조	20387
3	5개 숫자 일치	1,197,130	1,398	5	50만	각조	9175
4	4개 숫자 일치	48,967	68,356			각조	29
5	3개 숫자 일치	5,000	1,060,204			각조	31
						각조	23
						각조	2
						각조	0
						각조	9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오래리벨링스피츠포츠센터	인내테크 정규직 여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3	062-956-9405
ING생명(본사)	[광주본사]영업팀/TM상담원-월300만이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3	02-3452-2612
㈜제일소프트	웹디자인/고객상담 및 업무보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4	062-227-3118
㈜동일칼강	관리부 경리사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2/24	062-944-8877
오스템임플란트(주)	치과용 임플란트 영업 신입/경력직 (광주광역시)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5	02-2125-7903
㈜대영	공사 감독.공무/네트워크관리(현장)/하드웨어 설계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2/26	062-670-0321
㈜그린텔	KTF광주점서비스센터 정규직 인바운드 상담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8	042-223-4900
미디어에듀케이션	홍보상담(TM)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9	011-638-7607
떡보의하루호남지사	기획사무, 영업기획 운영총괄 담당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9	062-962-8567
삼성전자서비스(주)	[광주/전남/전북] A/S 엔지니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0	031-270-2477
광주보건대학	광주보건대학 2009학년도 1학기 교수	대원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968-7504
에스아이산업(주)	건축기계설비기술자, 소방기계설비기술자	고졸/경력무관	2800~3000	12/31	062-371-3182
㈜하이모 광주지점	스타일리스트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2/31	062-526-5858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